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04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c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정삼권 신부
(부송동 성당 주임)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주일'로 지냅니다. 이는 폴란드 출신 파우스티나 성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녀는 생전에 계시나 환시 같은 체험을 통해 모든 영혼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자비'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상(상본)이 부활 후 첫 주일날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주일이 될 것이다.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을,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원이 열릴 것이며, 네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는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 부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의 축일은 나의 온 세상을 위한 위로의 심원에서 나왔으며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거대한 심원을 확인해 줄 것이다.”

우리는 부활성야 미사 중 '부활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밤은 온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들을 세속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은총으로써 성덕에 뭉쳐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

자로 부활하신 밤. 오, 오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 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며, 도로 준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에게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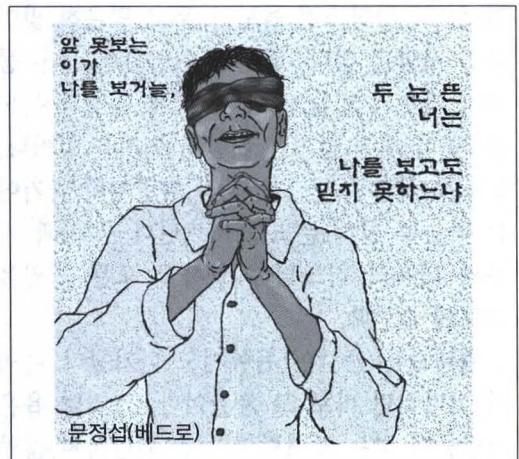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

우리 모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아멘.

숨머리 생각



옴의 찬미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욘 1,2)

옴이 시험에 들었다. 이는 마귀의 시험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옴은 영문을 모른 채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다. 가축과 재물은 물론 일꾼들까지 하루 아침에 잃었다. 난데없이 약탈자들이 나타나 빼앗고 죽인 것이다. 하늘의 벼락까지도 재산과 일꾼들을 불살랐다. 재난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전에 비보가 또 날아들었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식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다. 순식간에 옴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난의 체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세상 어딘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소리가 있다. 갑작스런 몰락을 두고 평온히 맞아들일 사람은 없다. 절망과 허탈감은 물론 몸조차 가누기 힘들 것이다. 이때 원망과 분노를 쏟아 내지 않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분노를 삭힐 누군가를 찾기 마련이며 급기야는 하늘을 향해 분노를 터트린다. 원망과 저주와 미움이 하느님께 향하고 모든 책임을 그분께 돌린다.

위태로운 순간이 옴에게도 다가왔다. 마귀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나 옴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

다. 맞이한 재앙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느님께 맞설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되 물릴 권리는 없다. 그는 누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된다.

“벌거벗고 세상에 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인생의 적나라한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그에게는 열려 있었다.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니다. 모두가 잠시 왔다 가는 것들이다. 그것을 잘못이라 한다면 죄는 사람에게 있다. 하느님은 오직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옴은 재앙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옴의 찬미는 단순한 시험의 극복이 아니었다. 마귀의 시샘을 넘어서서 흠 없는 자의 고백이었다. 우리도 나약하지만 기도하며 역경 중에 시험을 극복하도록 옴의 말을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생명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

한·미 FTA 협상, 그게 무어 길래 하나뿐인 생명인데 분신(焚身)을 하고 공기총을 쏘아대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가!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거래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양보해서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생명의 안전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와 안전검사(유전자조작 농산물 검사)를 생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말일게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내팽개쳤다"고 통탄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가벼이 본 처사가 또 있다. 소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내린 '인간 배아 복제 연구 허용'이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중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부·

과학계·윤리계'를 대표하는 동수(同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무늬만 그럴싸한 것 같다. 이번에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윤리계 위원 전제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원했지만 수(數)에 밀려서 서면결의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정부위원들과 과학계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말이다.



한상감(바로로)
신앙문화해설사회장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교회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례적으로 일간신문에 '인간 배아 복제 연구 허용을 개탄하며!'라는 제목의 광고를 낸 것이다. 이 광고가 실린 한 신문의 같은 면에 올라 있는 칼럼 내용이 좋아서 골자(骨子)만 옮겨 적는다. "인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 탐구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엿보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도 있다. ... 전쟁의 도구였던 철없는 과학이 새 길을 찾아 금기의 영역을 엿보고 있다. '생명과학' 내지는 '유전자공학'의 이름을 빌려 생명의 뿌리에, 특히 인간의 씨앗에. ... 인간의 씨앗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1베드 2,2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5,12-16

회답송 시편 118(117), 2-4,22-24,25-27ㄱ(㉑)

◎ 주님을 찬송하여라, 종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묵시 1,9-11,12-13,17-19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성유축성미사



4월 5일 (목) 10시 30분 주교 좌 중앙 성당에서 성유축성 미사가 있었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를 중심으로 교구의 사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일 년 동안 쓸 새로운 성유(크리스마, 병자, 예비자성유)를 축성하였다. 또한 교구사제들은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서약을 주교와 하느님의 백성 앞에서 다시금 서약하는 '서약 갱신' 예식도 가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자 염원인 '모두가 하나되게 하소서'의 의미를 드러내는 미사와 성유축성을 통한 성령의 힘으로 사제들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원하였다.

|홍보국 취재

● 주님 만찬미사

4월 5일(목) 저녁 8시에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호성동 성당에서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 날 미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행하신 만찬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었



음을 기억하는 '세족례'가 있었다. 강론을 통해 이병호 주교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인간을 당신의 '피' 로써 구원하셨다"는 것과 바로 "이러한 구원이야말로 당신의 '몸'을 통해 이룩하신 구원"으로 이 "몸"이 상징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 "몸소 발을 씻겨주셨다"는 "세족례"의 모범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특히 가정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홍보국 취재

● 지곡동 성당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지난 4월 6일(금)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에서 주님 수난예식이 거행되었다.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1부 말씀 전례, 2부 십자가 경배와 이스라엘 성지 복구를 위한 봉헌, 3부 영성체 순으로 이어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수난복음중의 한 대목인 '다 이루어졌다.'와 '숨을 거두셨다'를 인용하여 주님께서서만 지니고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은총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영성체 후의 강복에 앞서 부활전야미사까지 계속되는 성삼일을 잘 지켜서 주님부활이 주는 기쁨과 평화,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고 참석한 신자들을 격려했다.

|김영수, 이미원

부동산 경매 실전 재테크

- 수강 회원 모집 -

기간 : 2개월 과정
모집반 : 주, 아간반(소수정원제)/주 2회
학습관 : 중화산동 터를 뒤편
문의 : 229-1113 / 019-526-1490
플러스 옥션
박성윤(안토니오)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상

이복동(마테오) ·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가자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 등 전자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량 김영기(스테파노), 장영주(요셉파나)

비새는집 100% 방수

방수, 단열, ISO 9001 인증
기타, 스퀘트, 슬라브, 축사, 기타
신기술 방수, 단열 방음, 3중효과
삼부주택개발 김 원(토마스)
문의 : 010-8228-3424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 / 씽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 (가브리엘)
☎ 063)275-9236~7
011-294-6471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정문 앞)
☎(063)275-5700
FAX. (063)275-5760



● 치명자산 십자가의 길



● 예수 부활 대축일 전야미사



4월 5일(토) 오후 8시에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이병호주교의 주례로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 성야미

사 있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된 이날 미사는 주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신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말씀의 전례로 이어졌다. 또한 성수축성과 신자들의 세례갱신식도 함께 거행했던 이날 미사에서 이병호 주교는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복음서의 반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바로 ‘너희가 네 안에 계신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홍보국 취재

빛따라 창간 20주년 미사 및 기념식



지난 4월 8일(주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빛따라 창간(1987년 4월 19일) 20주년 기념미사를 김정현 청소년 교육국장신부, 부국장 양재식 신부, 서석희 홍보국장신부 집전으로 봉헌했다. 이 미사에는 빛따라를 이끌어온 선생님들과 기자단 그리고 기자단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김정현 신부는 강론에서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성체 후 서석희 신부는 “빛따라 창간20주년을 축하하며 주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이끌어 오는데 고생하였으며 빛따라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발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재식 신부는 “청년이 되기 전 중·고등학생 때 빛따라를 통해서 지면으로 보는 말씀들이 청년으로 가는데 한층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간단한 기념식에서는 세분의 신부와 현재 빛따라 기자단 단장(=공소영 지나)과 케이크 절단을 하고 창간 20주년 미사 및 기념식을 마쳤다.

|홍보국 정례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오)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아관재

☎ 228-6002~3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TEL (063) 255-6200

FAX (063) 255-6202

H. 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양)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행주문 환영, 케이크 할인판매)

천사의 양식

효자동 하이마트 · 광진목화(파트) 맞은편

김병각(대건 안드리아) 김현배(베로니카)

문의 : 255-1004, 016-627-9966

해맑은 펜션

www.내린천해맑은펜션.kr

=강원도인제 관광안내=

MT 워크샵 / 연수 / 각종단체모임 / 레프팅

▶ 산과 아름다운 계곡 자연의 고향

강원도인제 해맑은펜션에서는

편안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용순(세레나) 033-463-4486~7

010-8385-4485



교구장 일정

- 사제평의회
4월 18일(수) 오후 2시
- 광주신학교 방문
4월 19일(목)~20일(금) 오후 5시
- 견진
4월 22일(주일) 오전 10시 요촌
- 빈첸시오회 설립 174주년 교구도입 40주년 기념미사
4월 22일(주일) 오후 4시 30분 덕진

미사·행사·모임

- 교육국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4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교구 자모회 월례미사
4월 16일(월) 센터

- 성가복지회 이사회
4월 17일(화) 오후 2시 센터
- 환경미사와 환경강좌
4월 18일(수) 오후 2시 전동성당
제목: 즐거운 불편
(서울대교구 환경사목 이은진)
- 새 사제 연수
4월 19일(목) 오전 10시 센터
- M.E. 115차 주말
4월 20일(금)~22일(주일) 천호
- 동전주하나회 미사
4월 22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교육·피정·연수

- 레지오 브레시디움 간부 직책별 교육
4월 16일(월) 요촌
- 교구 기지단 교육
4월 21일(토) 오후 5시 센터

- 본당 평신도 지도자 2단계 교육
교육일정: 전주, 김정교부, 임순남무진장지구
4/17, 24, 5/1, 8(매주화) 오후 7시~9시 삼천동 근산지구
4/18, 25, 5/2, 9(매주수) 오후 7시~9시 나운동 익산 남·북 지구
4/20, 27, 5/4, 11(매주금) 오후 7시~9시 어양동
참가대상: 본당 사목위임 및 제단체 간부
참가비: 1인당 12,000원
(교재 및 간식제공, 매 2시간 4회교육)
준비물: 필기도구
참가신청: 4월 7일(토)까지 사목국
FAX: 285-0049

4월 좋은 영화 -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살아있어도 죽어 있음의 의미. 죽었어도 살아있음의 의미를 영상미학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멜로드라마.

- 일시: 4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상영시간: 138 분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4월 7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오수, 오룡동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유아동, 팔복, 용안, 신태인, 순창, 고산, 나운동, 서학동, 월명동, 우림, 숲정이, 신동, 여산, 무주, 서신동, 월명동, 영등동, 조촌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인후동,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복자, 우전, 시기동, 팔마, 원평,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송천동,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응진, 요촌, 부안, 화산동

단위: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10,677,774	71.19%
사제단	1,000,000	1,291,394	129.14%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697,841	46.52%
수익사업	500,000	232,824	46.56%
합계	18,000,000	12,899,833	71.67%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4/1~7)
전주교구 M.E. 협의회 5,000,000
안산 고잔본당 김준교 신부 1,000,000
치명자산 웅기막성당 아침미사 회원들 3,738,000

본당 발전과 친목을 위한 바자회

일시: 4월 20일(금)~22일(주일)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장소: 삼천동 성당 잔치마당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이동 입양상담
문의: 032-875-3240
www.hschild.or.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4월 22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광주 가톨릭 센터
비고: 내일의 선교사를 초대합니다.
문의: 010-6269-1711
kmsvocation@daum.net

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월 22일(주일)
장소: 과천 본원
문의: 011-9920-9423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의 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 기 영

- ◎ 감사: 부활대축일 나눔 잔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 ◎ 구약성경 쓰기: 4월 23일~12월 20일(잠언~집회서, 욥기)
- 1. 오늘 ① 하나님의 자비주일 선교사 돕기 2차 헌금
② 아치에스 행사(교중미사 후) Pr. 전단원 참석 ③ 성인복사회
④ 안나회 ⑤ 아가페회
- 2. 금주 ① 이수녀님 피정 15일~21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② 제대회 20일(금) 미사 후
- 3. 감사헌금: 익명 7만 4. 감사: 익명 돼지 1마리
- 5. 신축헌금: 익명 50만
- 6. 차주 ① 성바오로딸 문서선교(교중미사 후) 서적, 카세트테이프, CD
전시 판대 ② 전례분과모임
■ 지난주 봉헌금: 3,139,180원 ■ 교무금: 1,86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 상 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 일 태

- ◎ 성서읽기: 4월 셋째주간-지혜서15장~19장
- ◎ 오늘은 만남주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시다
- ◎ 선교사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 ◎ 성당청소: 4월21일(토) - 운교, 죽산반
- 1. 모임 ①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 데레사회-4월17일(화) 후8시
- 2. 금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옥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강미애, 함은화
- 3. 차주전례: 해설-김영애 독서-이기재 부부
봉헌-김동숙, 김순옥 기도-변상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32,000원 ■ 교무금: 830,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 운 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 윤 옥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 영명을 축하드립니다: 20일(금) 김 도미나 수녀님
- 1. 금주모임: 테레사회, 울트레아-미사 후, 애령회-17일(화)11시
성모회-18일(수)미사 후
- 2. 차주모임: 꾸리아-미사 후
- 3. 청소: 금주-파티마의 모후, 차주-착한 의견의 어머니
- 4. 차량봉사: 김진한 김희중, 차주-오용호 정준일
- 5. 감사헌금: 장순덕
■ 지난주 봉헌금: 1,897,570원 ■ 교무금: 1,840,000원
■ 2차헌금: 660,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성 팔
유지원: 633-4006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 장 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주 참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 27).
- 1. 유아세례: 26일(목) 저녁미사중 -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2. 신데레사 수녀님 피정: 16일(월)~26일(목), 많은 기도바랍니다.
- 3. 영화상영: 오늘(일) 후 2시, 구유치원
- 4. 나눔의 잔치에 쓸 썩 채워: 22일(일) 교중미사 후, 많은 동참바랍니다.
- 5.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655,620단
- 6. 센타 신축헌금 신입액: 159,724,000원, 납입액-128,638,000원
7. 감사헌금: 익명 200만, 박한철 40만, 익명 100만, 강경수 3만
익명 10만
■ 지난주 봉헌금: 2,189,100원 ■ 교무금: 2,329,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 선 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 동 수
안들공소: 433-3177 유지원: 433-2293

- ◎ 첫영성체 교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1. 금주 ① 15일(일) 선교사2차 헌금, 이명서베드로회
② 16일(월) 전9:30 산악회 모임(마이산)
③ 17일(화) 성모회, 구역방장모임
④ 20일(금) 유치원 소풍(대전동물원)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 광 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 용 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201,15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시다.
4. 부활절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금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변홍섭, 이영자
6. 차량봉사: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 차주전례: 해설 - 전미숙, 독서 - 황일주, 신광일
8. 차량봉사: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 중 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 제 진

1. 공소미사 ① 삼길 -오늘 후6시 ② 성수-18일(수) 후7시
2. 은인을 구합니다: 수녀원 비품 -게시판 참조
3. 임명: 성수구역장 김춘이(베네딕도) - 수고해 주십시오.
※ 박영순(아팔리아)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헌금: 이옥선 10만원, 박차남 3만원, 김창용 5만원,
김영해 5만원, 서정형, 노봉순 2만5천원, 김진호 5만원
5. 봉당설립 50주년 기금: 전순관(안나) 5만원 ※ 누계-64,284,131원
6. 모임 ① 구역모임: 18일(수)-관1,2,3, 19일(목)-임2, 20일(금)-관4,5
② 구역장회의 -차주 미사 후(본도관)
7.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청용 ② 20일(금)-임실5
③ 22일(일)-덕치, 가리점
■ 부활절야 봉헌금: 590,000원 ■ 교무금: 770,000원
■ 부활대축일 봉헌금: 2,223,5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 기 봉
F A X: 351-0606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 상 화

- ◎ 부활 준비에 수고하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 1. 우리장계본당 가정은 성구가혼을 만듭니다
① 기간: 3월18-4월15일 ② 전시회: 4월22-4월29일
③ 시상식: 5월6일 (주일공식미사중)
- 2. 성가대조직: 지휘자-박정선, 단장-이현숙, 총무-이귀라
- 3. 좋은책소개: '리나' 이상일 신부 지음 ※ 문의 사무실 351-0111
- 4. 가정방문: 18일(수) 오후2시삼봉
- 5. 사순절 돼지 저금통: 미사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6. 2차헌금: 337,000원
■ 지난주 봉헌금: 1,377,600원 ■ 교무금: 44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 선 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 동 표

- ◎ 부활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서신동 성당 바오로회 의료봉사활동
※ 일시: 22일(일) 교중미사후 - 후5시까지
※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청년회 봉사활동: 09시까지 성당모임)
- 1. 금주참여공소: 수분, 차주-모든 공소 참석
- 2. 금주공소미사: 상동, 차주-공소미사없음
- 3. 금주전례: 김원순, 차주-이유미
- 4. 금주독서: 정연수, 최선영, 차주-박동표, 김복순
- 5. 금주봉헌: 이승하, 이옥주, 차주-장재주, 최임주
- 6. 차량봉사: 금주-김철수, 차주-정용석
■ 지난주 봉헌금: 1,250,000원 ■ 교무금: 323,000원

- ⑤ 21일(토) 미사 후 만나회, 유치원 및 성당 방염공사(~23일까지)
- 2. 차주: 22일(일) 미사후 대건회
- 3. 예수부활 대축일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분들께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569,000원 ■ 교무금: 975,000원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5년 12월 3일에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조사 법정이 개정 된 이래 신부님의 삶과 성덕, 그리고 그 평판의 지속성에 대한 조사가 2007년 2월 22일의 증거 제출 회기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현장 조사와 기적 심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는 최양업 신부님의 출생지와 활동지, 선종지와 무덤 소재지 등을 방문, 조사하고 ‘공적 경배의 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 심사’는 최양업 신부의 전구(轉求)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은혜, 즉 기적의 유무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조 5항)과 시성성의 지침(시성성의 1983년 2월 7일부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조-제34조)에 따르면 증거자의 시복 조사에는 ‘기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는 124위 순교자의 시복 조사와는 달리 증거자로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 기적 심사는 필수 요건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모진 박해로 스러져 가는 신생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착한 목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한반도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심산유곡에 산재해 있는 교우촌 신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쏟다가 과로로 선종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성덕은 오늘날 한국의 모든 신자와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좋은 귀감



최양업 신부 좌상

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과 시복 조사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양업 신부님을 현양하는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조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일일이 상기한 교황령과 시성성의 규칙에 따라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유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 02-460-76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성인 반열에 올라 한국 천주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2007년 4월 15일
최양업 신부의 사제 서품 기념일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일 주교